

중견작가들이 밝히는 문장수업과정과 글쓰기의 비결

「좋은 글, 잘된 문장 이렇게 쓴다」

그동안 줄기차게 써왔던 일기며 잡문의 범위를 넘어 본격적인 글쓰기를 준비하려는 요즘의 나에게 「좋은 글, 잘된 문장 이렇게 쓴다」는 이 책의 제목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책의 광고 카피를 보아도, '문학사상의 20주년 출판기념'이나 '중견문인 44인이 밝힌 문장 수업과정과 글쓰기 비결의 전부'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내 기대를 어김없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은 의외로 너무 더디게 읽혀졌다.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글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견작가들의 치밀한 문장론을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글은 작가들의 문장수업의 경험을 에세이식으로 정리한 글이었다. 각 작가들은 자신이 어떤 동기로 글을 쓰게 되고 어떤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은 글쓰는 자신의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의외였고 조금 실망스럽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꼭 나 같기도 해서 흥미를 갖고 읽었다.

여러 작가들의 글을 비슷한 틀거리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갔지만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듯 보였다.

하나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런 내용을 취하는데, 자신의 글쓰기를 둘러싼 에피소드가 중심 내용인 경우이다. 그 중에서 하근찬씨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하근찬씨는 시를 써서 몇차례 문예지에 보내봤지만 번번이 떨어지지만 한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결혼은 해야겠다고 돈이 없는 절박한 사정 때문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춘문에 소설부문—시보다 상금이 많아서—에 응모해 놓고 빛을 저서 결혼을 했다. 그때 쓴 작품이 「수난시대」인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당선되어 빛을 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글쓰는 이들의 경제적 고충이 드러나 안타깝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김춘수, 한승원, 김대행의 글처럼 자신의 문장수업을 둘러싼 고민과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경우이다. 특히, 한승원씨가 젊은날 두려움없이 써내려온 문장을 거두고 시작한 치밀한 문장수업의 내용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 왜냐하면 나도 항상 무슨 고질병처럼, 문장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채울 어휘에 대해 끊임없이 망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면돌파해 가는 작가의 치열함이 나에게 무척 격없이 자극이 되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왠지 아주 조금 맛만 보다 끝난 것처럼 아쉬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국어 교과서 같은 딱딱한 형식성을 벗어나, 작가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문장론을 소개한 책은 참으로 흔치 않다. 「좋은 글 잘된 문장 이렇게 쓴다」는 그 첫발을 독자와 함께 내디뎠다는 점에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나치게 중복되는 내용을 조금은 더 깔끔하게 정돈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작가에 따라, 글쓰기의 경력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거나 아니면 좀더 자세하게 자신의 문장 수업의 본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더라면 나는 훨씬 흥미를 가지고 읽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내용은 서로 다른 색깔의 문체를 습득한 작가의 상이한 문장론이 나란히 실렸더라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미련이 계속 남았다.

정진영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삼성APT 111동 2702호

「마르크스에서 그리스도어로」

최근 내마음을 사로잡는 책 한 권이 있었다. 그 책이 바로 양한모 선생의 회고록 「마르크스에서 그리스도어로」이다. 70여년의 생애 속에서 꿈꿨던 소년시절의 사상적 방향에서 마르크스공산주의의 남로당 서울시위원장까지의 좌익생활도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 기업체, 4개 신문사의 경영자, 증권회사 사장을 거쳐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양한모 선생은 여러 사람이 평생에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몫을 혼자서 담당하면서 파란만장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증인인 것이다.

일제시 일본인만 다니던 국민학교에 입학시킬 만큼 그의 부친은 동양척식회사의 사원이며 넉넉한 지주였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동화되려는 커녕 일찍이 민족의식에 싹이 터, 중학교 때 철학서적 등을 탐독하며 방향 끝에 16세에 공산주의사상에서, 소외된 민족해방의 실마리를 찾은 후 옥고도 많이 치렀지만 해방 후에는 남로당 서울시위원장에게까지 임명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이 민족구원의 길이라기보다는 민족파멸의 길임을 깨닫고 6·25 전체인 1949년 그가 29세 때 전향하므로 그의 민족의식이 또다시 되살아나

경찰로서 여간첩 김수임, 남로당 실질적 지도자인 김삼룡, 이주하, 북로당 남반부공작책 성시백의 검거 등으로 남로당을 와해시켰다.

장면박사가 작고한 지 1년후인 1968년 드디어 가톨릭에 입교하게 된다. 이 후에 저술활동도 활발하여 「조국은 하나였다」 등 9권의 저술을 남겼으며 1981년 10월부터는 「전환기의 내막」이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가톨릭신문 논설위원과 가톨릭관계 논문 및 통일문제에 대한 글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술활동 이외에도 교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시 그 실상을 폭로하는 「찢어진 기록」을 제작하여 해외에 보내므로 새역사 창조에 또다시 도전한다.

그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 공산주의 13년, 자본주의 19년, 기독교 24년의 아주 짙은 체험을 솔직하게 남겨 못다 이룬 그의 경륜을 썼으니,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빼돌려졌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 책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김호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APT 32동 701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무리 컴퓨터나 자동차가 생활의 보편적인 수단이 되어 '돈'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회이지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역사와 역사적 인물, 역사적 유물에 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탐구로 감동을 전하여 준다. 계속적으로 치달아야만 하는 달리기 시험에서 버들잎이 떠있는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는 유쾌한 책읽기였다.

이 책은 일관되게 한가지 뼈대를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빼돌려진 영웅사관과 함께 독재자와 손잡고 왜곡되어 온 역사에 관한 깊은 반성이 그것이다. 그 반성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인 민중과 민중사관을 넓게 이야기 하고 있다.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말을 되도록이면 쉽게 풀어쓰려 한 흔적이 그것이다. 그렇게됨으로써 역사를 좀더 가까이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깨워줌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것이 역사라는 사

실을 그는 말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문학 작품과 사진·그림·서화·민담 등을 등장시켜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아름다움을 깨우쳐주는 친절한 지식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E.H. 카아의 「歷史는 무엇인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역사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시작되며, 전통이란 관습과 교훈을 미래에 전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글은 온고지신이라 표현하면 제각각인 듯 싶다. 유흥준씨는 그런 역사의 발전성을 「나의……」를 통하여 비판이란 반성을 통하여 내일의 건전한 역사적의식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김태완

경남 양산군 상북면 대석리 일양APT 102동 408호

「적과 동지」

역사에 있어 '가정'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겪는 고초가 너무 크기에 한번쯤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섞인 상상을 해보곤 한다.

일제하에서 막 벗어난 한반도를 놓고 제각기 자국 이념의 확산과 나아가서 패권주의적 속셈을 가지고 대좌한 미·소 양국에 대해 한 민족이 역량을 결집시켜 주체적으로 해방정국을 주도해나가 양 강대국을 밀어부쳤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치 않은 회망사항이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사가 분단, 동족상잔, 군사쿠데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보면 정치가이자 민족주의자인 몽양 여운형선생의 좌우합작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암흑의 상황에서 한줄기 빛이었고, 그런 노력이 무산되고 그 자신 극우파의 총탄에 희생된 것은 민족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강준식의 정치대하소설 「적과 동지」는 그런 점을 못내 아쉬워 한 듯 모양의 일대기를 그려냈다. 이 책은 해방정국 속에서 펼쳐진 익히 알려진 '당연한' 힘겨루기 도식을 깨고 몽양을 축으로 박헌영까지도 포함 '가능성의 시대'를 서술해냈다는 점에서 사뭇 충격적이다. 좌우의 대결 속에 어디에도 발붙이기 어렵지만 역으로 좌우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진정 민

죽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찾고자 한 몽양의 민족주의 정신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 충실하게 그려냈다.

일본왕의 항복선언 직전 고하 송진우가 거부한 총독부의 시국 담당요청을 해방후 몸담고 있던 좌익으로부터 쏟아진 맹렬한 비난을 감수한 채 흔쾌히 수락한 당당한 태도, 미군정도 혀를 내두른 정권획득 차원에서의 반공주의자 이승만, 반탁운동을 전개한 목적이 통일정권수립이었다는 판단착오의 김구, 북한 김일성, 소련을 등에 업은 박헌영 등 모두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포용력, 최후에 온건좌우의 통합으로 급선회한 차선책의 논리, 수차례의 테러를 당하고도 미군정에게 협상과기 비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미군의 경호를 마다한 불꽃 같은 인내심 등에서 몽양이 걸어갔던 민족주의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적과 동지」는 또한 미국, 일본 등에 산재해 있는 한국해방전후사에 대한 문헌진 자료들을 찾아내 잊혀졌거나 왜곡됐던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잡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정권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패망 후 일본 총독부가 벌인 공작, 일본왕의 무조건 항복 라디오 발표를 못알아듣거나 알아들어다 나서기 무서워 정작 45년 8월15일에는 거리가 조용했다는 것과,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베트남의 디엠처럼 남한에도 친미 우익정권을 세우기 위해 미군정이 전개한 비밀공작의 자세한 내막 등은 우리에게 쓰라린 현대사이자 7권의 소설을 단숨에 읽어내게한 윤희유 역할을 한다.

민족주의 가치를 내걸고 흥미한 해방정국을 종횡무진으로 활약한 몽양의 활동상을 그린 「적과 동지」는 흑백논리로 인해 도외시된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촉구하며 픽션 논픽션을 떠나 허리잘린 이땅에 살고있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경숙

인천시 남구 학익2동 신동아APT 8동 1101호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독서란 책읽기 과정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모든 지식을 얻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책읽기의 중요성 대신 지식 암기에 치중하도록 해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 실시되는 수험능력시험은 그런 면에서 다소 교육방식을 비꿀 수 있는 동기가 된 것 같다. 물론 낮은 평가방식이 하루아침에 교육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점진적으로 교육방법을 바꾸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서란 아직도 낮은 개념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 어느 누구도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신현재 외 공저인 「독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저서임에 틀림없다. 이 책의 예상 독자는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 연구자들—대학생, 대학원생, 교사를 포함하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으로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부분으로 제2부 독서 교육 방법론이나 제3부 독서 교육 평가론은 오늘의 한국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또한 객관식 위주의 답고르기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의 중고생들에게—이러한 평가는 수학적 시험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교육방법과 평가를 적용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독서는 단지 흥미를 위해 책장이나 넘기는 행위가 아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니더라도 배경지식을 얻도록 하고, 또한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물론 독서지도 방법이 어느 특정한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질적으로 급속한 향상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현장 교사와 대학에서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론과 검증을 함께 하려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 교육이란 가르침에 대한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검증하려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독서 교육도 그러한 작업 가운데 하나이며, 현장 담당자들의 부단한 실험정신이 요구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독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은 이러한 실험 정신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허재영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 106번지



좋은 책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표지디자인—신뢰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



5 1 1 1 7 2 1

디자인포럼은 최첨단 매킨토시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편집디자인, 조판, 출력을 원하시는 출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조판에 있어 디자인, 서체, 그림, 도표, 이미지처리법 등을 화면상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효과는 2배, 비용은 일반전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디자인포럼의 실적등 회사안내서를 원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자인포럼이 강남출판문화센터로 이사했습니다.

주소: 135-120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4층
전화: 511-1721(대표번호) 팩스: 511-1724

개업일: 1989년 1월 4일

주업무: 광고, 표지디자인, 단행본출판대행

주거래처: 교보문고, 한길사

매킨토시 기종: II ci, I si 등 5대, 스캐너, 300DPI 프린터기